달라이라마, 호주 산불 피해 위로

구호금도 전달 "인명피해와 자연파괴 깊은 애도"



지난 1월 6일 보드가야에서 법회를 봉행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지난해 9월 발생한 호주 화재가 아직까지 진화되지 않는 가운데,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호주 정부에 공식적인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 1월 9일 '티베트 썬', '아웃룩 인디아' 등의 외신들은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를 보도했다.

1월 8일, 스콧 모리슨 총리 앞으로 발송된 메시지에서 달라이라마는 총리와 호주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표명했다. 달라이라마는 가장 먼저 "모리슨 총리와 호주국민들에게, 아름다운 국토가 파괴된 것에 나의 깊은 슬픔과 연민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나운 화재가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연이 파괴된 것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전례 없는 화재로 가족들을 잃은 이들과 살 터전이 사라진 많은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슬픔을 표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소방대원들과 같이 개개인의 용기를 보이는 분들을 격려한다"며 화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칭찬했다.

달라이라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국제적 단결은 하나 된 인류애와 자비로운 본성의 한 예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지구온난화를 대응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로 메시지를 전한 달라이라마는 1월 2일부터 5일간 인도의 보드가야 법회를 봉행했으며, 법석에서 "이번 법회에 보시된 보시금의 일부를 호주 산불 피해를 위한 구호금으로 전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수년간 호주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가장 최근 방문은 2018년 6월이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 성도지에 불교연구소 출범

마하보디연구소, 1월부터 공식 학위과정 개강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성지 보드가야에 소재한 국제 불교연구소가 공식 학위과정을 시작했다. 지난 1월 11일 인도의 '캠퍼스 바르타'는 '마하보디 국제 팔리 불교연구소'에서 학위과정이 개강했다고 보도했다. 1차 수업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작하며, 국제 팔리 불교연구소에서의 과정은 인도 내외의 연구소 또는 대학으로부터 유효하게 인정받는 학위와 수료증이 부여된다.

인도 마하보디 협회에 소속된 이 연구소는 1891년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Anagarik Dharmapala)에 의해 설립됐다. 연구소는 팔리어와 불교철학에 대한 교육을 주요목적으로 삼고 있다. 설립자인 다르마팔라는 인도의 성지들을 부흥하고 특히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재건해 인도 현대불교의 부흥을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하다.

다르마팔라는 "인도의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불교에 대한 식견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불자들을 위해 설립된 당초의 모습에서 그 실력과 규모를 갖춘 연구소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3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받으면서 본격적인 국제 불교학 연구소로 출범했다.

협회 총무국장인 왈리 테르(P.Sewali Ther)는 "깨달음의 땅인 보드가야에서 체계적인 불교를 교육하는 본격적인 활동이 연구소를 통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구소 측은 카일라스 프라사드(Kailash Prasad) 박사, 끼란 라마(Kiran Lama) 등 다른 지역의 불교학자들을 초청, 협력하며 산스크리트 전통의 불교학도 가르칠 예정이다.

마하보디협회는 "팔리어로 남은 삼장을 연구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며,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학위과정이 인정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과 기대를 내비쳤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호신불 '프라쿠르안' 열풍

중년 남성들에게 인기… 영험담 점차 늘어나

박영빈 객원기자

전통적으로 많은 불교국가에는 소지자의 심신을 지켜준다는 호신불이나 호신부의 전통이 전해오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상좌부 불교국가인 태국에선 '프라쿠르안'이라는 호신불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다. 1월 9일, 일본의 '엑사이트 뉴스'는 태국의 호신불 열풍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프라쿠르안(Prakuran)'은 일반적으로 불상이나 불탑의 형상으로 조성된다. 개중에는 유명한 고승의 모습이나 태국 민간신앙에서 유래한 모양도 있다. 이들은 모두 태국 국내 각지의 사찰에서 만들어지며 스님들의 축원을 통해 완성된다. 보통은 목에 걸 수 있게 목걸이 형태로 나오지만, 개중에는 벽걸이 액자의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중년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는 프라쿠르안에 대해 '엑사이트 뉴스'는 "프라쿠르안에 대한 태국인들의 생각은 여타 불교국가에서 생각하는 호신불·호신부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고 전했다.

엑사이트 뉴스는 태국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태국인들은 프라쿠르안에 실제로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

불상불탑 형태 대부분이지만
고승·민간신앙 유래도 있어
SNS로 대중 소문 퍼지면서
일부 호신불 수십억 원 호가

자체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강력한 위신력으로 보호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태국에서는 프라쿠르안과 관련된 영험담이나 소문이 무성해 이를 모은 책이 따로 출판되기도 했다.



마하랏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프라쿠르안'들. **사진출처=엑사이트 뉴스**

인터뷰에 응한 한 태국인은 "프라쿠르안을 몸에 소지하고 있다가 사고를 피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흔하다. 실제 몇 년 전 대형 교통사고의 생존자들이 전원 프라쿠르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그 인기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태국 내에서 프라쿠르안 시장은 매우 활성화된 상태다. 태국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은 방콕의 마하랏 시장. 전문 업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장품을 판매하려는 사람까지 국내외의 수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전문 감정사도 등장하고 있다. 시대나 조성된 사찰, 조형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가치가 조명되고 있다. 특히 유명한 고승이 만들었거나 수백 년이 지나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 오래된 사원의 탑 등에서 나온 파편이나 고승의 사리나 유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엔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그 경제적 가치는 태국 내에서 널리 인식돼, 부동산 등 고액의 거래에서 프라쿠르안이 담보로도 통용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열풍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 불자는 "몸을 지켜준다고 하는 빠릿따(paritta, 수호경)에 대한 신앙이 민간신앙과 합쳐져 생겨난 현상"이라며 "지나친 열광은 불교 본연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른 불자는 "불상이나 덕이 높은 스님들의 모습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신심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그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말 그대로 우상숭배다. 부처님은 우상숭배를 가르치지 않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민의견 반영한 美 사찰 건립

산호세 에버그린 지구, 테라와다 불교 사찰

캄보디아 불교계 건립 추진
법당·공동회관 등 갖췄지만
일부 지역주민 반대 의견 내
공청회 열고 오해 해소 나서

미국 산호세에 사찰 건립을 위해 사찰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에 나서 화제다. 1월 10일, 미국의 '산호세 스포트라이트'는 산호세의 에버그린 지구의 불교사찰과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조율한 과정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15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모였다. 의제는 에버그린 지구에 새롭게 건립될 불교사찰에 관한 내용이었다. 두 시간 가량 이어진 대화는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에버그린 지구의 루비가(街)에 건립될 왓 크메르 캄푸치아 크롬 사원(Wat Khmer Kampuchea Krom Temple)은 캄보디아 불교계가 건립할 테라와다 불교사찰이다. 사찰 측이 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사찰은 법당과 공동회관, 식당, 8인의 스님들을 위한 숙소를 갖출 예정이다.

사찰 측은 "이 지역은 운전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포함한 300여 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차량소음과 매연,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83대 규모의 주차장을 지하로 이전하는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계획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사찰의 건립자이자 전무이사 인 리아람 씨는 "사찰은 넓은 공간과 정원을 가진 평화롭고 사색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모든 계획은 주변 지역사회에 맞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의 대표 설계자와 건축사 역시 "사찰이 건립될 지역이 단독주택 구역이지만, 산호세시는 이러한 지역에 종교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산호세시는 종교시설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간을 지원한다"며 법적으로나 시 운영계획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사찰 측이 준비한 3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인근 단체 '루비 놀우드 코어 그룹' 멤버들은 해당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 측은 "예불과 특별 행사 동안에



산호세 에버그린 주민 150여명이 불교 사찰 건립 계획안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산호세 스포트라이트**

는 교회, 회당, 모스크와 유사하게 교통량이 증가하고 소음공해와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 대표인 쿠베키 씨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원치 않으며,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적 외관이 에버그린 지구 미래건설의 선례가 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사찰 건립 예정부지에는 5채의 버려진 단독 주택과 헛간이 있다. 현재 이 건물들의 높이는 10m밖에 되지 않는 반면, 사찰의 높이는 최고 20m까지 확장될 계획이다. 적절한 수행환경을 위해 기존에 식재된 나무들을 제거하는 등의 계획이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리아 람 전무이사는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적인 결혼식과 장례식은 전통적으로 사찰이 아닌 불자의 집에서 봉행된다고 답변했다.

람씨는 "다양한 의견을 고맙게 생각한다. 많은 주민들이 불교문화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것에서 이견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화, 종교, 삶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람 씨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주민들이 끝까지 싸우겠지만, 이번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낙관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승기신론』과 『해동소』의 정수를 온전히 풀어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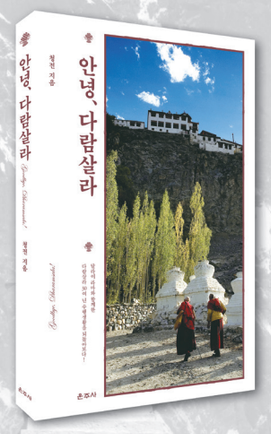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3

대승불교의 교과서 『대승기신론』과 그 주석서로 인도와 중국을 뒤흔든 원효의 『소별기』!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 양장/각권 400여쪽/각권 20,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